

---

# 전원주택 정원 만들기

이진규  
네이처 조경디자인 소장

## 전원주택을 위한 정원만들기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정원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함에도 유독 정원만들기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천편일률식이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 많다. 더구나 너무 비슷비슷한 식이라 개성 있는 정원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집을 짓는 마지막 공정에 해당하니 집짓는 과정에서 고단하고 중요한 선택들을 내리다 보면 정원은 애초의 꿈에서 멀어지기 쉽다.

### 정원을 만드는 마음의 준비

좋은 정원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좋은 산책과 사색이 필요하다. 먼저 동네주변부터 찬찬히 돌아보면서 우리 동네에는 어떤 종류의 나무(향토수종이라고 합니다)가 심겨져 있는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나무가 잘 자라고 관리가 쉬운지에 대한 정답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조금씩 범위를 넓혀 가면서 뒷동산까지 여러 번 산책을 하다 보면 나무 뿐만 아니라 길가의 하찮았던 돌맹이, 야생초까지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일단 보이기 시작하면 애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붓물처럼 솟아나는 자연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면 정원을 만드는 준비는 마친 셈이다.

다음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풍경이나 느낌을 음미해 본다. 어릴 적 추억이나 여행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풍경들을 모아서 스크랩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앨범을 뒤져 풍경이 있는 가족사진들을 모으고 일부는 잡지책의 사진들을 오려서 이미지 정원 스크랩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그 안에는 햇빛, 쏟아지는 별빛, 흙냄새, 풀냄새, 팔랑거리는 나비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처럼 느낌을 담은 보물상자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정원에서는 채움보다는 비움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잔잔한 울림이 있는 여백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자. 아마도 이제부터 당신의 전원주택의 정원에는 색다른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값비싼 정원수나 묘지를 지키던 식물로 채워진 죽은 정원이 아닌 살아 있는 생명으로 가득 찬 정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의 정원사다. 직접 정원사가 되어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채소를 기르고 하는 일은 자연의 가치를 몸으로 이해하는 가장 좋은 일이다.

정원은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면서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담고 있는 정교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한번에 세련되고 높은 정원문화를 소유하려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신다면 정원은 그리 어려운 것도 돈이 많이 드는 것도 결코 아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던 자연에 대한 본능을 일깨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원주택을 위한 정원은 돈을 많이 들인 깔끔한 정원보다 자연을 가깝게 끌어 들인 자연스런 정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전원주택의 정원에는 공을 들여 가꾼 잔디밭이나 고급스러운 정원수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정원을 만드는 일은 시간과 함께 일해야 하는 작업이다. 큰 나무를 옮겨서 새로운 풍경을 만들 수도 있지만 나무가 커나가는 과정을 지켜 보시면서도 좋은 정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정원garden을 만드는 정원일gardening은 울타리 안으로 자연을 끌어 들여 재창조하는 일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울타리 안으로 자연의 일부를 끌어 들이는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무엇이든 가득채우려는 욕심이 생기게 된다. 이때는 일단 작업을 멈추고 무엇을 채울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비울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사색이 필요하게 된다.

정원일의 목표를 세운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우선 정원이 꿈꾸는 이상은 '자연과의 조화'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원일은 우리의 삶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100년전 조선을 여행했던 퍼시벌 로웰은 조선의 조경에 대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품안으로 맞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미의 극치'라고 이야기 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 자연석쌓기와 분재 같은 소나무

요리로 비유한다면 좋은 재료는 좋은 조리 방법을 만나야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연재료는 다루는 방법이 까다로워서 제대로 맛을 내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예를들면 자연석을 제대로 다루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자연석쌓기를 보면 별 의미 없는 일본식 돌쌓기 형식일 뿐인데도 돌 하나마다 새겨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시한 채 아까운 자연석 재료를 낭비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자연석쌓기는 좋은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쓸데없이 정원공사비를 높이는 원인을 제공한다.

좋은 나무란 우리의 정원에 잘 어울리는 나무이다. 분재같이 생긴 소나무의 경우는 가격이 대단히 비싸지만 한국적인 풍경을 만드는 재료로 흔히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소나무를 정원에 심기 시작하면 전체 분위기를 조절하는 팽팽한 긴장이 생기기 시작해서 정원에는 계절에 따른 변화가 줄어들고 분위기가 고정된다. 이러한 정원에서는 사람이 정원에 압도되어 정원이 편안하고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상식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 그런 식으로 정원을 만들기 시작하면 마침내 값비싼 정원수의 전시장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 우리가 살고 싶은 아름다운 자연 속의 삶터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 잔디없는 정원

잔디밭은 정원만들기의 종착지인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잔디밭은 관리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제대로 깎아 주지 않으면 덩수룩하게 자라 보기에 좋지 않다. 그냥 정원에 넓은 잔디밭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잔디를 얼마정도의 높이로 유지해야 꿈꾸던 그림 같은 잔디밭처럼 보일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잔디밭은 만드는 데 필요한 돈보다 관리하는데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생각하자. 물론 잔디관리를 운동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한 면적으로 유지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잔디밭을 만들 때는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 가급적 작은 면적을 차지하면서도 관리가 쉽도록 가장자리부분을 단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잔디밭은 정원만들기의 시작일 뿐이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정원만들기에 처음 도전한 정원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잔디밭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녹색의 사막’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의 측면이다. 눈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획일적이며 끊임없이 물과 비료를 투입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좀 더 많은 식물과 곤충들이 찾아 올 수 있는 낙원이 정원의 진정한 목표가 아닐런지?

만약 푸른 삶이 가득한 전원주택을 꿈꾸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려고 한다면 우선은 값비싼 정원수와 정원석 대신에 우리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재료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클/(주)네이처조경디자인/대표 이진규 (02) 569-9427

[www.flower-wolf.com](http://www.flower-wolf.com)/우리시대 정원이야기

그럼 정원주택을 위한 정원만들기의 DIY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번째, 키가 크게 크는 교목류보다는 꽃피는 화목류와 키작은 화목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목류는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옮기고 심는 데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수수꽃다리(라일락)과 같은 화목류는 키도 교목이나 관목의 중간정도여서 승용차로 옮길 수도 있고 대부분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계절별로 골고루 심어 보세요.

두번째, 나무와 꽃을 고르실 때는 가족과 함께 식물원이나 수목원을 찾아 가셔서 직접 관찰하고 일일이 이름을 구별하고 구입하도록 하세요. 가능하면 학명이나 품종명까지 알아두신다면 좋겠죠. 그리고 나무를 심고 나서도 이름표를 달아 주세요. 식물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서 구분하고 이름을 기억해서 하나 하나 불러 주는 것은 정원만들기를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세번째, 지피류와 초화류를 많이 사용하세요. 가능하면 자생화를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신품종의 초화류에도 관심을 가져 보세요. 사실 교목이나 관목보다 지피류와 초화류는 종류가 엄청 많아서 꽃의 색이나 전체의 질감을 잘 섞어서 심는 것은 정원이라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얀 꽃 만을 심어서 하얀정원을 만들어도 좋구요. 제가 좋아하는 흰색정원(white garden)이나 보라빛정원(violet garden)은 어떨까요?

네번째,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정자목이라고 해서 마을의 어귀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멋진 나무를 구경하신 적이 있죠. 정자목으로 사용되는 나무는 수명이 긴 나무를 쓰는 것이 요령이구요. 가족과 가문의 역사를 기억하는 정자목을 정원 한쪽 구석에 구상해 보세요. 그 밑에는 책을 읽거나 바비큐 그릴을 위한 장소를 만드시면 어떨까요? 심으실 때는 서향의 빛을 가리기 위해 가능한 서쪽에 심는다는 것 잊지 마시구요.

다섯번째, 나무마다 가족들의 이름을 붙여서 관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고 관심을 가져 줄 때 정원은 아름다워질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집 앞에서 현관까지는 아빠가 관리하는 공간이에요. 전정이라고 하죠. 거실에서 보이는 정원은 주정이라고 해요. 그곳은 아이들과 엄마가 관리하는 공간이에요. 집 뒤에 부엌과 가까운 곳에는 후정을 만들어 보세요. 그곳에는 온 식구가 정성껏 가꾸는 텃밭을 만들어 보세요.